



세월호 참사 10주기에 함께 드리는 YWCA 공동기도문

비처럼 햇빛처럼
모든 생명들에게 오시는 생명의 하나님,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는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눈물을 닦아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을 살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잊어버리고,
다른 이들의 아픔과 고통에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며,
생명들을 일으킬 용기는 내지 않고 쉽게 좌절하는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한 우리이지만,
정의와 평화와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땅의 아이들과 생명들이
다시는 탐욕과 거짓의 사회체제로 인해 희생되지 않게
하나님나라의 정의를 이루도록 우리를 깨우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큰 아픔과 슬픔을 당한 생명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세상의 질서를 세우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비처럼 햇빛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생명을 위한 길에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